



구급대원은 어느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까요?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



병원 전 한국형 중증도 분류 도구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Pre-KTAS)

중증도 분류	정의	사례	이송 의료기관
Level 1 소생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상태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권역응급의료(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Level 2 긴급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머리·복부·가슴 관통상	응급의료기관
Level 3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 동반 설사	응급의료시설
Level 4 준응급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또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일반 병·의원
Level 5 비응급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변비, 치아(잇몸) 문제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

- 환자 증상 및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처치·시술 가능 여부 등
-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응급실 진료불가 사항(전산장애, 장비 고장 등)

1. 구급대원은 119법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2.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이 원칙입니다.
3.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4. 응급실 진료 순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르며 내원수단(119구급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